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 봉준호 "기생충, 자본주의 심장인 미국서 뜨거운 반응 예상"

기사입력 2020-01-07 10:42



/사진=뉴시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의 흥행을 예상했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봉준호 감독은 5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 힐스에서 열린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봉 감독은 "'(기생충'은) 자본주의에 관한 영화인데, 미국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심장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논쟁적이고 뜨거운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나 사회적인 주제도 있지만, 그것을 아주 매력적이고 관객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전해주는, 우리 뛰어난 배우들의 매력이 어필되었기 때문에 미국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같이 일한 멋진 앙상블을 보여준 우리 배우들과 같이 일한 스태프, 바른손, CJ, 네온(미국 배급사)의 회사 분들께 감사의 말을 못 했다. 마침 이렇게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생충'은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 외국어영화상 후보로는 '더 페어웰'(출루 왕 감독), '레 미제라블'(래드 리 감독), '페인 앤 글로리'(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셀린 시아마 감독) 등이 올랐다.

봉 감독은 수상이 발표되자 "자막의 장벽, 장벽도 아니다. 1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며 "오늘 함께 후보에 오른 페드로 알모도바르, 그리고 멋진 세계 영화 감독님들과 함께 후보에 오를 수 있어서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감독상과 각본상 부문에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감독상은 '1917'의 샘 멘데스 감독에게, 각본상은 '원스 어폰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에게 돌아갔다.

#봉준호 #기생충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 ▶ **클릭해, 뉴스 들어간다 [뉴스쿨]**
- ▶ **세상에 이런일이 [fn파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4&aid=0004353731>

---